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



2007년 11월

이 천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하도록,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생활환경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인 것이다. 우리 이천시의원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나라를 연수하기로 했으며, 2007년 11월 05일 11시간의 긴 비행을 시작했다.

별다른 형식 없이 일자와 장소별 기행문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일기 쓰듯이 현황과 참고사진 그리고 본인의 생각, 우리나라 또는 우리시와의 비교 등을 형식 없이 서술하고자 한다.

### 11월 05일 (월)

비행기연착으로 인해 15:15발 비행기로 출발하여 11시간을 날아 현지시간 18:30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한에 도착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네덜란드는 낙농과 화훼로 소득을 올려 잘사는 나라로 알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네덜란드의 모습을 보기로 되어 있어 그때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는 현지시간 20:15분발 비행기로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갔다.

핀란드 헬싱키 반다시 반다 국제공항에 12:00에 도착했고 Radisson sas espoo hotel에 투숙했다.

### 11월 06일 (화)

핀란드는 남한의 3배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5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헬싱키, 반다, 에스포시가 붙어 있으며 이 세 지역에 사는 인구가 100만 명이다. 국토의 70%가 숲과 호수로 되어 있고 호수가 18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GDP는 \$30,000 정도이다. 목재와 펄프를 주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지만, IT산업도 발달한 나라인 것 같다. 노키아 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테크놀로지 산업도 같이 육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키아 핸드폰은 전체의 3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숙한 호텔이다.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이다. 낮고 작은 아주 아담한 호텔이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눈에 띈다.



앞에 위치한 호수와의 조화를 위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이다. 낮고 작은 아주 아담한 호텔이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눈에 띈다. 앞에 위치한 호수와의 조화를 위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이다. 낮고 작은 아주 아담한 호텔이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눈에 띈다.

## ☞ Market 광장



이 건물은 아주 오래된 시장 건물이다.

1888년이라는 정면 위에 위치한 숫자는 120년이 시장 건물의 나이를 의미하고 있다

120년을 거치면서 전통시장이 되었고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건 파는 시장이 관광객의 의 눈길을 끌고 관광코스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결국은 건축시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이후 120년의 세월이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리라



## ☞ 원로원 광장

원로원 광장에는 중앙에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동상이 있다. 핀란드는 3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다. 이 러시아 지배시기 즉 알렉산더 2세의 시기에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로서 알렉산더 2세는 핀란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다



알렉산더 2세의 동상 아래로는 자유, 평등, 법, 노동의 상징으로 의인화 된 동상들이 4면에 배치되어 있다

위 네 가지 사안들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국가로서 시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알렉산더 2세의 정치철학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이로서 피지배국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동상 뒤에는 헬싱키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성당은 레오 크래식 건축물로 앵겔이란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한다. 세금문제로 인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회로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 동상의 오른쪽에는 헬싱키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좌측에는 재무부(국무총리실)가 자리하고 있다.

이 광장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치적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며 이 이념이 지금의 핀란드 정치의 근간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 ☞ 우스펜스키 사원 ( Uspenskin Tuomiokirkko )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 하에 있다가 1809년에 전쟁 없이 러시아에 양도 되었다.

이후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이다 .

이 우스펜스키 사원은 러시아 지배시절에 러시아인 고르너 스타예프의 설계로 지어졌으며 러시아가 핀란드를 정신적,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지배를 하기 위하여 헬싱키의 중심인 항구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졌다.



## ☞ 핀란드는 ?

이쯤에서 핀란드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자

핀란드는 이원집정제로 대통령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이며 국가예산 중 26.5%를 복지예산에 지출하는 나라이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570유로가 수당으로 지급되며 둘이면 1,000유로가 지급된다. 반은 아이 몫이고 반은 엄마(양육자)의 몫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주치의가 배정되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모든 의료비는 무료라 한다. 2세부터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고 지자체에서 유치원으로 지급된다. 모든 육아에 관한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의무화되어있다고 한다. 엄마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키울 경우는 그 비용이 엄마에게 지급된다.

교통문제 또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주의 깊게 볼 사항은 전차의 운행이다.

환경과 교통을 위하여 전차를 확대운행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전차, 버스는 우선시 된다 사고 시는 그 외 차량의 100% 잘못으로 처리 된다고 한다. 북유럽의 교통정책은 모두 비슷하므로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자.

핀란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차량이다. 모두 수입품일색인 것이다. 알고 보니 핀란드는 자체 브랜드가 없는 것이다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현대차를 수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차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단다. 우리국민들과의 현저한 의식차이에서 오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차량을 큰 것을 좋아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작은 경차를 타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괘시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내구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되는데 그때의 가격을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확실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

이제 우리도 주택과 차는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이로 인해 괘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식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 ♣ 시벨리우스 공원



시벨리우스는 1900년대 초를 대표하는 음악가이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독립심을 불러 일으킨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시벨리우스의 역작인 “나의조국 핀란드여”는 3년간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1910년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주석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여류 조각가 에일라 힐투넨에 의하여 만들어 세웠다. 이후에 시벨리우스의 두상을 만들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원에 놓여졌다.

## ♣ 암석교회 ( Temppeliaukion Kirkko )

이 암석교회는 1967년에 뤼모, 뤼모 쌍둥이 건축가에 의해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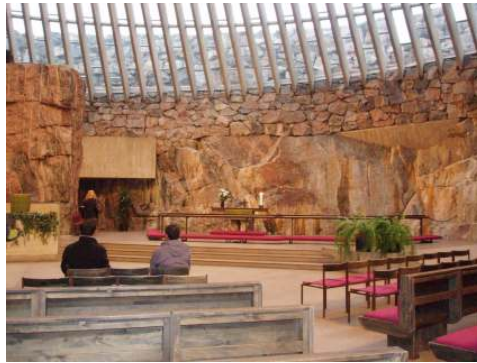
화강암을 폭파하여 그 잔해물인 돌로 건축을 했다  
1969년, 2년 만에 완성한 루터교 교회이다

암석을 폭파하여 건축한

것이 특이하고 이러한 건축물을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할 것이다

이 교회는 특이한 것이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바위를 폭파하여 공터를 만들고 그 안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천정을 돔 형식으로 햇빛이 그대로 비쳐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가 공연장처럼 되어 있고 좌측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별거 아닌 것을 생각해내고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 ♣ 헬싱키의 도시과 방문 ( 헬싱키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



우리는 헬싱키 시청의 도시과를 방문했다.

헬싱키 도시과 직원은 약 300명이라 한다. 이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다

도시과 팀장인 더글라스 고든을 만나서 헬싱키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들어봤다.

팀장인 더글라스는 건축가로서 과원 300명을 지휘하여 헬싱키의 도시계획을 지휘하고 있다

더글라스는 핀란드를 이렇게 소개 한다

- ① 산타크로스의 고향이며 집으로 포근하고 평화로운 나라임을 강조한다.
- ②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핀란드식 사우나를 자랑한다.
- ③ 세계적으로 유명한 IT의 최고봉 “노키아”를 자랑한다.
- ④ 여름에는 12시까지 밝고 풍부한 일조량이 있다.
- ⑤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영하 27도 까지 되는 매우 추운 2개의 도시로 표현한다.

건축가이자 헬싱키 도시계획 팀장인 더글라스는 헬싱키의 도시계획에 관해 세 가지를 말한다.

- ① 헬싱키의 도시계획 과정
- ② 도시계획의 진행과정
- ③ 성공하게 된 이유

헬싱키는 아주 잘 계획된 도시라고 강조한다. 2차대전 후로 컴팩트하고 밀집되어 있지만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가든과 같은 도시라 설명한다. 다섯개의 손가락같이 생긴 헬싱키는 2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도시계획의 과정을 먼저 ① 지역전체의 계획을 하고 ② 그 속에서 헬싱키의 계획을 세우고 ③ 헬싱키의 지역지역의 계획을 세운다. ④ 그리고 지역마다의 디자인 계획을 세운다. 고 한다

헬싱키의 2040계획은

“무엇을 원 하는가 ?”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얻은 답은 첫째, 헬싱키를 넓히는 것, 둘째, 여러 개의 센터 구상, 셋째, 통로 설정 (벨트화), 넷째, 중심가를 강하게 하고 외곽의 배런스를 조정하는 것 (센터간의 배런스 조정)



이것이 헬싱키 계획의 시작이다. 5개의 센터를 수상하고 있다. 인구 565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계획이다.

오래된 항구 두 곳을 옮기는 계획이 있으며 이는 2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로 가는 게이트웨이를 정리한다. 이는 90%의 자동차가 거치는 곳으로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Metro and Rail 계획으로 중앙과 외곽을 연결하는 전차 라인으로 현재 10개 라인이며 2개 라인을 새로이 추가 할 계획이다. 남서 남동의 중심지에서 공항으로의 전철 계획도 있다. 전철계획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직선계획으로 추가하고 있다.

오른쪽 도면은 헬싱키 내의 Kamp(캄피)지역으로 7,000명의 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부여하는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변모한다. 50%는 개인주택으로 건축하게 되고 50%의 주택은 국영 임대주택으로 싼값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안지역은 녹지공간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공간 등 공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라 한다.





이 지역은 ECO (에코) 지역으로 인구 1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의 지역을 모두 새로운 자연보호와 기능의 건물을 건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50%절감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물도 40% 절감되는 시설이 된다.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연료 또한 많은 부분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성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계획하고 있는 것 중 몇 개 지역만 소개 했지만 이는 실제로 도시계획이 도시의 구조를 바람직하게 변경하고 있다는 생각 든다. 도시의 구역 구역을 다이나믹하게 변화한다고 더글라스는 역설한다.

더글라스는 말한다.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 ①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② 어디에 할지 결정한다.
- ③ 얼마나 할지 결정한다. ④ 언제 할지를 결정한다.
- ⑤ 누가 지을지 안다. ⑥ 100% 자율성 보장됨
- ⑦ 그래서 스마트하게 결정한다.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른다. 그가 말하는 헬싱키의 주거지 특성은 이렇다, 10년간 인구와 주택이 15%씩 증가해 왔다. 슬럼지역이 없다. 주변국가보다 3-4배 성장했다. 독신자가 많다. 40만개의 직업이 있다. 미래는 더 나은 모습을 항상 구상한다.



헬싱키 도시계획의 실행과정에 기본적으로 한 것은 먼저 교통의 흐름은 러시아워 때 72%가 트랜스페테이션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35%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녹지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중앙난방식을 택해서 주거 사무실 등에 연결하여 전체의 93%를 중앙난방으로 해결한다. 또한 200km의 서비스 터널을 만들어 주민 편의에 기여한다. 여기서 터널은 교통 노선으로 도시의 교통흐름의 공간을 터널로 표현한다.

내가 느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 “만약에 시행과정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냐”고 더글라스는 질문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을 질문했기 때문이며 민원이란 것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300명이 넘는 도시계획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항상 같이 계획에 관한 의견을 받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데 민원이란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이란 숨기고 가려지는데서 오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개진과 동의 절차 없이 공무원의 권한으로 시행되는데서 오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중요함을 여기서 또 한번 절실히 느끼고 가슴에 담는다.

## ☞ 핀란드의 가정복지에 대하여

핀란드는 여성복지 아동복지등에 관하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합하여 가정복지 차원에서 정리 되어지고 있다.

이들은 85%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면 3년간 휴가를 갖을 수 있다. 1년은 유급이며 임금의 80%를 받는다. 아이가 두 살이 되면 엄마는 무급인데 지방정부에서 2년간 500유로를 매달 지급한다. 잔여 2년간의 휴가는 부부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몇 개월씩 교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가정복지로 규정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혼모는 경제력이 없으면 지방정부에서 APT를 제공하며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모든 비용이 지급된다.

세금이 많게는 55%까지 납부한다. 모든 사람은 수입이 정리되고 불로소득은 있을 수 없기에 세금을 탈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전 재산이 공개 된다. 주인이 공무원의 대하여 문의하면 해당공무원의 병력이외에는 모두 알려 준다고 한다.

어느 저명한 정치인이 5년 동안에 단 한번 기업인으로부터 20,000유로를 받았다고 한다. 깨끗한 사회구조로 인해 발각이 되었고 그 다음날 그는 사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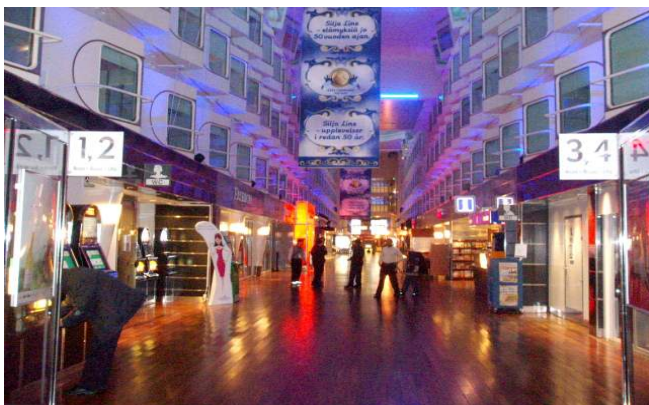
또 하나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의원이 이라크 관련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들통 난 다음날 그 의원은 제명당했다. 그리고 이 두 전치인은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 한다.

부패 없는 나라 1위, 정부 신뢰도 1위인 나라 핀란드는 정치인들이 갖추어야할 덕목이 도덕성이라고 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부패와 거짓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선거에 말 접어들고 있다. 원조부패, 변형부패로 대변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토론에서 “부패한 것이 무능한 것보다 낫다” “부패해도 좋으니 국민만 잘살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등의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거짓말하는 정치인,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치계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국민적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 ☞ SILJA LINE (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선상호텔 )



실야 라인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운항하는 대표적인 크루즈 라인이다. 헬싱키와 스톡홀름의 운항 구간은 실야 세레나테와 실야 심포니, 두 대의 쌍둥이 배가 운항을 하며 승객을 2,800여명을 수용하는 5,800톤급 대형유람선이다.

레스토랑, 각종 바, 카지노, 사우나등 고급호텔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으로 가는 선상에서 보는 경관은 참으로 좋았다. 아늑한 전원생활이며 호수 변에 마련된

주택들은 내가 바라는 퇴직 후의 생활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삶의 여유와 안정되고 안락한 생활을 바라는 것은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 11월 07일 (수)

### ☞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 ( 실아라인 하선 )

스웨덴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며 북게르만 족이다. GDP는 약 \$46,000이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실리콘 밸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IT강국에 해당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볼보와 샤프를 소유한 나라이다.

종교는 95%가 루터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생활은 하되 교회는 가지 않는다. 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며 1%의 종교세를 납부한다.

경제체제는 혼합경제로 사유재산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주로 세제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세제부담이 상당히 크며 일부는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서비스로 다시 개인에게 환원된다.

육아보조비는 만18세까지 매월 지급되며 중학교는 경찰이 끝어다 앓힐 정도로 강제적이며 대학은 고교 졸업 후 직장생활하면서 보다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된다. 대학에 대하여는 40세까지 보조해주며 50%는 보조이고 50%는 대출로 졸업 후에 갚아야 한다.

스웨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일이 밥 먹이고, 옷사주고,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것 밖에 없다고 한다.

### ☞ 스웨덴의 유치원



스웨덴의 유치원은 더기스라 한다.

더기스는 공립과 사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통은 공립들이 많고 사립은 많지 않으며 부족한 시설을 채우는 차원의 사립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더기스는 스톡홀름 외곽 주택가에 위치한 공립 더기스 이다. 여기는 1.5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 있으며, 아이 6명당 1명의 교사가 있다. 6명의 교사가 있으며 반반씩 두 구역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외부는 잘 갖추어진 자연공원과 같다. 밖에서 노는 자연적 놀이터를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본다.

영하 15도 까지는 밖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따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우리와는 별개의 나라인 것 같다.

휴투성이가 되어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놀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해 본다. 모습은 그럴지만 목적과 방법이 많아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의 안으로 들어가 보자

실내의 첫 느낌은 촉다는 것이었다. 온도가 높지 않고 발이 시리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실내는 온도가 낮았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아이들을 촬영하게 하지 않는데 있다.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는지라 아이들의 생활을 담지 못하여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식당은 무공해 식품으로 별도로 주문해서 식단을 차린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샐러드라고 한다. 별도로 샐러드에 익숙해지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식사 전에 모두모여 놀이하고, 노래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게 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과 식사 예절과 식사하는 방법과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 습관형성은 중요한 교육방법이라 생각된다.



유치원의 교육은 교육청으로부터 부여되는 아이템, 규칙 등 큰 틀에서 교육의 지침이 정해진다. 그 틀 안에서 유치원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그 틀 중의 하나는 글보다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테마를 주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게 된다.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 잘 만들고 잘못 만들고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만든 아이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아이의 의지를 꺾지 않고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더기스의 교육은 체험과 창작을 위주로 한다.

아이들마다 별도의 폴더를 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이들의 창의력의 발달과정과 이를 통한 아이들의 생각이 기록된다. 또한 매월 프로젝트 아이템별로 아이 생각의 변화를 체크하여 기록한다.

의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을 부모와 미팅이 있으며 수시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이의 창의력이 어떻게 발전 돼 가고 있는지 ?

아이템을 통한 아이의 사고는 어떻게 형성 돼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아이의 전체적 사고와 정체성은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형성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나갈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 방은 만들기 프로젝트 룸이다

5세 이하는 교사를 동반해야 하고, 그 이상은 단독으로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들을

통해 파악하여 재료를 구입하고 더기스에서 재료들을 구입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구입되어 있다. 더불어 연장, 공구들도 구비되어 있다. 이 훈련으로 아이들이 커서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에게서 좋아하는 재능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변경하여 진행하여 아이 하나하나의 재능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아이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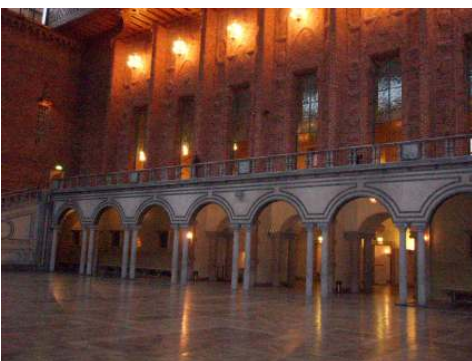
우리가 방문한 더기스는 대학의 유아교육과 출신이 2명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유아교육 수료 후 근무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자격 있는 보조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더기스들은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자라면 사설 더기스로 보낸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지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시달하고 더기스별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한다.



외국 특히 선진국의 교육제도는 고등학교까지는 사회 적응훈련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졸업 후 자신이 갖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훈련의 기초라 생각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은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회 적응훈련교육이어야 하며, 직업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원하는 자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대학 입시기준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 스톡홀름 시청 및 의회



우리는 스톡홀름 시청을 방문 했다. 사진은 시청 중앙 홀이다 천정이 없는 중앙 홀을 만들어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눈과 비 문제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바이킹의 후예답게 천정을 바이킹 배를 얹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시청의 행사는 물론 주민들의 행사까지도 이 넓은 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하고 개방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에 부러움이 가득 차 올랐다.



스톡홀름의 시의회 모습이다. 스톡홀름시는 정치적 힘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의회의 의장이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 파워는 재무담당 상임 위원장에게 있다고 한다. 의원 수는 101명이며, 그 중에 7명만이 직업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봉사직이라 한다. 회의시에만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봉사적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대부분 저녁시간에 한다고 한다. 또한 중요한 사안일 경우는 몇날 몇일을 회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토론문화 없이 권력을 가진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로 느껴진다.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을 만들어 내고 그 사람들로 인해 패거리 정치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의원으로서 정책결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로 이양된 아주 적은 권한마저도 단체장에게 있는 현실은 의원으로 하여금 할일 없이 허탈하고 무능함만이 느껴진다.

☞ 스톡홀름의 주민 생활에 대하여 .....



스톡홀름의 주민들은 재활용에 대한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고 한다. 집안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이 재활용 대상이며, 제품 또한 재생,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들은 어려서부터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번호로 인해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번호가 된다. 교육, 의료, 직장, 벌이 등 생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강자(부자)에게는 규제와 간섭의 번호가 된다. 특히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규제와 간섭이 된다. 탈세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곳에도 좀 도둑은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범죄나 생활고로 인한 범죄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알콜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로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65세가 정년이라 정년퇴직 후 많은 여행을 하고 있다. 한국은 특별한 상위층들의 특권이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다. 말년을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국민 모두 극부와 극빈이 없는 나라로 대부분 중산층의 생활을 한다. 중산층은 부부가 일을 할 경우 주택과 승용차 그리고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 없는 자들은 실로 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 바사 박물관 ( VASA MUSEUM )



바사 박물관에는 거대한 호화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다. 바사호는 1625년 구스타프2세 시절에 건조되어 1628년에 침몰하여 1956년 해양 고고학자 안데스 프란첸(Anders Franzen)에 의해 발견되고 1961년에 인양 되었다.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호화롭게 건조되고 계획보다 많은 포를 장착한 것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 처녀출항을 기념하기 위해 발사한 포로 인해 침몰되었다. 이 거대한 목조 호화 전함이 인양되어 바사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선조들의 호화로운 실수로 인해 후세들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 대 광 장



대광장에는 묘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다 이 구조물은 400여년 전의 우물이다 이 섬 하나가 스톡홀름시였을 때, 크리스티앙 2세가 즉위하던 때, 즉위식에 이 나라의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920명을 초대했다. 3일을 주연으로 베풀고 이 우물에서 920명을 모두 참수했다고 한다. 그 이후 간신히 탈출했던 왕자는 농민반란으로 바사왕으로 즉위했다 바사왕은 920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앞의 건물을 지으면서 그들의 피를 상징하는 920개의 붉은 벽돌로 장식했다고 한다.

역사는 문화인 것이다. 좋은 역사이든 수치의 역사이든 간에 우리는 그 것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좋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든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각인을 시키든 그것은 후세들의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우리 이천의 건축물 중 없어서 아쉬운 것이 있다. 그 하나는 구 경찰서 건물이다. 수치스런 일제의 잔재이긴 하지만 역사드라마의 촬영장이 되고 수치스런 역사를 반성하는 장소로 분면 우리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중앙 감리교회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이천에서 유일한 바로크 양식의 석조건물이다. 이 두 건물을 매입하여 건축에 맞도록 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세들에게서 빌려온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11월 08일 (목)

### ☞ 노르웨이에 대하여 (1).....

우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침을 맞았다.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고 오슬로는 신의 광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70,000에 이른다. 관세가 철폐되고 재산세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80%의 재원이 조달되는 산유국이다.

노르웨이의 노동자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노동시간은 7.5시간이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평일의 잔업은 주 10시간, 월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상의 잔업을 할 경우는 그 시간만큼 휴가를 갈 수 있다. 평일 잔업에 대하여는 145 -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대하여는 20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 부담으로 잔업을 지양하고 있다. 년 4주의 연차를 사용하며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으로 많은 예산을 유류 수출로 충당하고 있지만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때를 대비하여 이들은 원유 비축금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 원유 비축금은 국민 1인당 현재 6천만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머리는 두바이를 생각하고 있다. 원유의 고갈을 대비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국토를 다시 만들고 있는 나라 두바이. 세계의 관광 소비를 두바이로 끌어들이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를 다시 만들고 있다. 후일을 대비하는 생각과 이에 따른 계획과 실행으로 그 국민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0년을 유예 받고도 아무생각도 계획도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FTA, WTO의 대비는 우리 농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곧 정치계의 청렴도 차이라 생각한다. 부패하지 않고 진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한번만 더 고민하면 당연히 귀결되는 것인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 홀맨콜렌 ( Hollmen Kollen ) 점프대**



동계올림픽 개최지이며 스키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이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노르딕 스키 점프를 하는 점프대이다. 9번의 확장공사를 거쳐 139m의 점프대가 만들어 졌다. 점프대에서 점프 직전의 속도는 시속 130km라 한다. 이 점프대가 아니더라도 이보다 조금 작은 점프대가 시내외곽으로 몇 개가 보인다 생활속에 스키 점프가 녹아 있다는 느낌이다 스키 광이던 올라브 5세의 영향으로 스키가 일반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시내를 버스로 돌다보니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의 주변 즉 마당은 모두 공동묘지로 되어있는 것이 색다르게 보였다. 화장터도 시내 가운데에 있고 교회마다 공동묘지로 공원처럼 꾸며져 있다 매장은 12년이며, 12년 후에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묻힐 수 있다고 한다. 12년이면 매장된 시신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무덤을 보면서 누구나 피해가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진실해지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작은 이해관계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과는 많은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의식도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오슬로 시 청사 ( Radhuset )



시 청사는 오슬로의 상징이 되어있다. 두개의 탑을 가진 이 건물의 내외벽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독일군 점령하에 고뇌를 표현한 것들이 많아 국민의 감

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2층에는 뭉크의 “인생”이란 작품이 걸려있다.

이 청사는 노벨 평화상 시상지이기도 하다. 청사 내에는 의회도 있다. 의회 의원 수는 169명이고 40%가 여성의원이며 장관도 19명중 9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선거는 정당선거로 당의 정당정책을 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 요 양 원 ( Cathinka Guldberg )

우리가 방문한 이 요양원은 1868년 크리스찬 조직 간호사 리더인 cathinka guldberg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진 이름이다 오슬로 시내 가운데서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오슬로 시내에는 15개 구로 구분하고 50-60개의 요양원이 있다 오슬로 시내의 요양원은 모두 5,600개의 실을 보유 하고 있다 오슬로 시내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이며 신청자는 많으나 수용의 한계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시설의 슬로건은 생활에 영양소 공급이라고 한다. 거주노인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식을 제공하고 체력단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전문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목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언제든지 원할 때는 예 배 볼 수 있고 토론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나 강제가 아닌 원할 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입소한 노인들은 많은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취약한 노인들이다. 보통 4-5가지의 질병 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입소자 127명중 50-60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7개의 병실이 있고 여기에는 지속적 거주 노인이 있다. 어떤 시설은 단기적 사용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재활병동도 있으며 사망을 위한 병동도 구비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43개의 원룸병동을 임대하고 있다.

샤워와 쿠킹은 가능하지만 키친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시에서 파견한 가정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보게 되며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홈서비스는 사서할 수 있다. 낮에만 돌봐주는 시스템도 있으며 버스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린다. 입소자 평균 연령은 87.5세이며 빈부 격차를 두지 않고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67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하고 연금 중 75%를 원천징수로 공제하여 시설에 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입소자를 위해 콘서트 리더가 있어서 노래강습, 콘서트 등이 이루어진다. 피아노가 있고 작은 무대가 있어서 이곳이 콘서트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수요일 저녁에는 카페테리아, 노래, 음악 감상 등이 이루어진다. 금요일 14:00에는 콘서트가 있으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다. 입소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시설에서는 1유닛 별 25명을 관리한다. 1개 유닛은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GR A 7 P, 2 S	GR B 8 P, 2 S
GR C 10 P, 2 S	

간호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보조사도 각1명씩 근무한다. 저녁에는 5명, 밤에는 1명이 근무하여 24시간 근무하게 된다. 80%가 고질적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 질병으로 치매를 들 수 있다.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별도의 치매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가 관리하게 된다

[ 1 UNITS ]

이러한 시설 중 사립시설을 프라이 빛이라고 한다. 프라이 빛은 직원을 고용하고 시로 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입소자들의 연금 중 75%를 공제하여 프라이 빛에 지불하게 된다. 1명당 보조 금액은 5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8,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틀이 정해지고 그 틀 안에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노인정책도 역시 스웨덴의 아동정책 즉 프라이 빛도 더기스처럼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진행하게 된다.



노르웨이는 80년 동안 이 제도를 진행해 왔으며 1,000명을 230 병동에서 보살펴 왔다. Home helping service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으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제도인 것이다. 청소, 빨래 등은 댓가를 지불하지만 홈 헬핑은 무료이다. 그래도 많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도 한때 베이비 붐 세대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곧 노인의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정신병동도 갖추고 있으며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장례절차에 들어간다. 장례비용은 가족이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망자의 통장에서 해결한다. 망자의 통장에 비용이 없을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 최대한 간소하게 처리된다.



## 11월 09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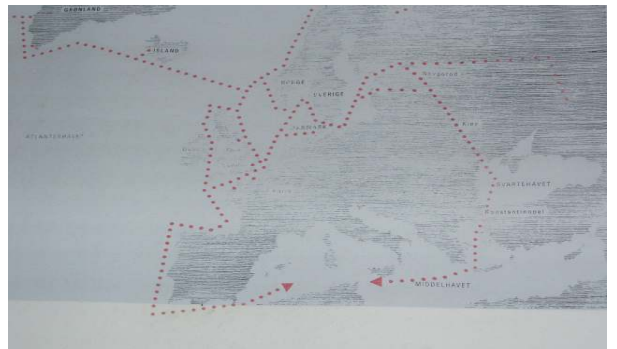
### 🌀 바이킹 박물관 ( Vikinghuset )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손이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해적이 아닌 자랑스런 조상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서기 800년대에 만들어지고 1904년에 발견된 오세베르그호, 고크스타호, 투네호 등 3척이 전시되어 있다. 점토(고령토)로 무덤을 만들어 진공상태가 유지되어 원형복구가 가능한 상태 였다고 한다.

이중 가장 크고 우아한 오세베르그호는 9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부엌용품과 가구류가 발견되었으며 고크스타호는 35명이 노를 젓고, 돛을 이용한 전형적인 바이킹 선으로 12두의 말, 6두의 개, 짐승의 머리로 장식된 침대와 보트가 발견되었다 바이킹 시대의 바이킹들의 활동영역은 상당히 넓었던 것 같다. 사진 상으로도 유럽 전체가 이들의 활동무대였던 것 같다



용감한 바이킹이 죽으면 천당에 가며 낮에는 마음껏 싸우고 저녁에는 미인들의 서비스를 받는 천국으로 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바이킹은 아주 용감해야 하고 잘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용감한 바이킹이 죽으면 바이킹배로 무덤을 만들고 점토를 사용하여 목재이면서 완전 부패되지 않고 후세에까지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 🌀 비겔란 조각공원 ( Vigeland Sculpture park )



이 비겔란 조각공원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슬로의 명물이며 관광지이다 10만평의 비옥한 농장을 70만 크로네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 땅은 현재 3,500만 크로네의 값이다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56억원 이상이 된다.

이 조각공원은 정문, 다리, 분수대, 모노리스 석탑 인생의 바퀴 등 5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청동, 화강암, 단철의 세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이 공원의 조각들은 일조에 따라 색깔과 음영을

달리하며 특히 석양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구스타프 비겔란 (Gustav Vigeland) 이란 걸출한 한사람의 조각가에 의해 212점의 조각과 공원이 만들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하겠다.

비겔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실물모형에 따라 조각된 것으로 한사람에 의해 삶에 대한 단일 주제로 이 많은 작품이 전시된 대단위 조각공원은 전례가 없다



조각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관람을 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가장 높은 모노리스 석탑이지만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해시계였다. 이 해시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 선조들이 만든 해시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1930년에 제작된 것이다. 세종대왕시기에 만들어진 자격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또 한번 우리 조상님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해시계를 받치고 있는 대리석은 비겔란의 어머니의 비석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임셋 (Imset)이 디자인한 해시계의 받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해시계와는 달리



모노리스(Monolith) 석탑은 이 조각공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180톤의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이 탑은 조각 부분의 높이가 14.1미터, 탑의 높이는 17.3미터이다. 이 탑에는 총 1121명의 사람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석탑은 비겔란 공원의 총 212개의 모든 작품을 하나로 응축, 통합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탄생, 성장, 죽음 즉 생로병사의 과정을 인간의 육체를 묘사했다. 이를 놓고 작품의 해석은 삶의 투쟁, 영혼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 인간의 일상생활의 표본, 인간의 부활의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공원의 중심에 설치된 청동의 분수대는 비겔란이 가장 열정을 쏟고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분수대는 거대한 물 쟁반을 6명의 각기 나이가 다른 건장한 남자가 받치고 있는데 이중 한명을 자신과 동일시했다고 하며, 각 계층의 조화와 협력의 필연성을 표현했다고 한다. 주변의 청동작품들은 년도 별로 제작되었으며 이 또 한 어린아이가 청년 장년 노년 죽음의 순환을 거쳐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담았다. 인생의 행로는 결국 동양사상의 하나인 윤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은 “삶의 바퀴”란 제목의 작품이다. 공원의 마지막 구간에 설치된 이 작품은 네명의 성인과 세명의 어린이가 뒤엉켜 있는 모습으로 직경3미터의 원형 조각품이다. 원의 형상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의미와 영원성을 표현 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간의 삶, 사후의 윤회사상까지를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한다 ( 1933 - 1934년에 제작된 작품 )

이 비겔란 조각공원은 걸출한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에 의해 만들어 졌다. 비겔란은 1869년에 태어나 1934년에 74세로 별세 했다. 공원에는 212개의 조각군과 671개의 인물상으로 이루어 졌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느낌이 다르며 조각에 대한 설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이유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는이의 시각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인생의 분수, 모노리스 탑, 화난소년 이라한다. 모노리스의 121명의 숫자는 미완성된 인간의 숫자를 의미한다. 완전한 숫자는 성부,성신,성자를 의미하는 3과 동서남북의 4를 곱한 12라고 한다. 이 완전한 하늘의 숫자에서 1을 뺀 11이 미완성의 인간의 숫자로 11과 11을 곱해 121의 인간을 조각했다.



위 사진은 화난소년이란 작품인데 도둑맞은 소년으로 더 유명하다. 도둑이 손, 발을 잘라갔으나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돈도 안되는 지라 두 번이나 돌려 줬다고 한다.

## 11월 10일 (토)

### ☘ 노르웨이에 대하여 (2).....

우리는 오슬로에서 버스로 베르겐으로 출발했다.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그동안 노르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스칸디나비아의 주 생산 농산물은 감자라 한다. 식사 때마다 나오는 감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술, 담배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술은 단 한 종류만을 생산하는데 감자로 만든 백주라 한다. 이 감자술은 가장 맛있는 술인데 우연히 이것을 실은 배가 적도를 지나오면서 숙성되어 맛이 변한 것을 알고 생산이 많아 졌으며 이제는 아쿠아병에 적도를 지난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었다고 한다. 이 감자술이 좋은 것은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으로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섭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르웨이는 도로변의 집들에게 도로 쪽으로 난 창에 대하여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시에서 70%를 지원하는데 2중창(10m/m)이며 진공층(8m/m)으로 된 창을 제공하여 단열과 소음을 차단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는 산골짜기 마다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금씩 모여 살고자 하므로 지원도 많다. 시골에 이사를 올 때면 439개의 시에서 정착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약 4,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비도 부담해 준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정책 중 농업정책의 기조는 농부들과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은 소비자가의 2배로 정부에서 전량 구매를 한다. 그 과정에서 65%를 지원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직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실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료정책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치의가 있으며 이들을 가정의라 부른다.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면 가정의에게 간다. 약간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하고 가정의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은 전문의에게 보낸다. 전문의에게도 약간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으며 수술을 해야 할 사항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종합병원에서는 수술비를 포함해 전액 무료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알아본다. 여기서는 장애인도 똑같이 학교에 들어간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는 없다. 모든 국민은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교사가 붙어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도록 되어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처우하고 있으며 다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다. 직업도 남들과 같이 갖도록 하고 세금공제도 똑같이 처우한다. 다만 각자의 신체에 맞도록 배려하는 직업을 갖도록 배려할 뿐이라고 한다.

### ☘ 송네 피요르드 ( songne fjord )



우리는 송네 피요르드를 보기 위하여 동부의 오슬로에서 1800고지의 아울란드 산의 험사달을 넘었다. 24.5km의 터널을 지나왔다. 단일터널로는 최장의 거리인 것 같다. 중간에 먼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진기와 환기구를 설치한 것도 여러 개 보인다. 잘못 들어선 차량을 위하여 중간에 차를 돌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작은 배려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터널처럼 터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갭내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플롬은 아주 작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송네 피요르드를 관광하기 위해 페리가 출발하는 곳이다. 송네 피요르드는 205km에 달하는 길이로 빙하시대에 빙하의 압력으로 깎여진 협곡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달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장소에서 그 속의 하나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해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은 더럽혀질 것 같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벽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보였다 이들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 골짜기 골짜기에 까지 도로를 내주고 전기를 넣은 것은 주민 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실히 엿보이는 것이다.



## 11월 11일 (일)

### ☞ 문화유산의 도시 베르겐 (Bergen)

우리는 송네 피요르드 관광을 마치고 보스에서 묵었다. 보스는 2차 세계 대전시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새로이 지어진 건물들로 만들어 졌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바로 베르겐으로 향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들이다. 베르겐이 유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위 사진들과 같이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항구의 노천 어시장은이다. 광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08:00 - 15:00경에 막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을 팔고 있으며 어패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훈제 연어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팔고 있다. 베르겐의 서민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일요일의 일정이 되어서 장을 볼 수가 없었다. 썰렁한 광장만 볼 수 있었다.

### ☞ 노르웨이에 대하여 (3).....

노르웨이는 sex free의 나라로 유명하다. 이는 자유로운 성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성운동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관한 운동을 얘기한다. 이 나라는 동거만으로도 법적으로 실제결혼으로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적이 아닌 사실혼을 이 나라에서는 사실혼을 법적혼으로 인정하고 적용한다고 한다. 이혼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아이의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직장 등 시간이 맞는 사람이 양육권을 갖기 쉽다. 양육권은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반반으로 할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3의 비율로 정하면 30%의 권리자가 70%의 권리자에게 차이 40%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결이 안되면 가정상담원이 해결한다. 아이의 나이가 12세 이하에는 아이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고 12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100% 적용해야만 한다.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점부터 별거를 1년간 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1년 연장하고 그래도 해결 안될 경우는 일방의 의사대로 법적 조치가 된다.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해결하며 혼전재산은 실거래 가에서 혼전 금액을 제하고 반반으로 나눈다. 다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나누지 않는다. 이 나라의 이혼사유로 제일 큰 것은 부부간의 불륜이라 한다. 이 사안은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며 이혼률은 30%라 한다. 이처럼 남녀가 진정한 동등한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썩스프리의 진정한 모습이라 한다.

## 11월 12일 (월)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Amsterdam )

네덜란드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바다보다 낮은 육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등장하기도 했다. 또 한 가지는 독립운동가 이준열사의 헤이그 밀사사건이다. 또한 월드컵 4강 신화를 남긴 히딩크 감독의 나라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들어선 나의 눈에 띄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부러움을 가지게 된 것은 잘 개발된 운하와 잘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이다

먼저 운하에 대하여 알아본다.

시내에 잘 만들어진 운하에는 수상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이 운하의 수상가옥들이 자체만으로도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운하의 원래목적인 화물 물동량 운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암스테르담에 2,500여 채의 수상가옥이 있다고 한다.



북의 베니스로 불릴 정도로 많은 섬들과 150개의 운하로 유럽의 물동량의 60%를 수용하고 있다. 라인강이 암스테르담 근처 까지 와 있고 이를 운하로 연결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이다. 또한 이는 북해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어 유럽의 물동량 운송의 중심으로 설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유럽 경제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도로지도를 만들 듯이 배들을 위한 운하를 설치하고 수로지도 를 만들어 배들이 무리 없이 운행되도록 하고 있다. 수로 지도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운하라는 것은 내 머리에 있던 것 이상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었다.

**☞ 네덜란드 운하의 물 관리에 대하여 .....**

운하는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바다와 운하의 수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운하의 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와 우수로 인해 해수면보다 운하의 수면이 높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는가 ?

우리는 운하 맨 끝단의 PUMP장을 방문했다. 수면의 차이를 PUMPING 함으로써 해결되고 있었다.



1953년 해일로 인해 2,000명이 사망한 후로 델타법이 상정되고 시행된다. 하천(운하) 말단 지역을 보호하는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다

시설관계자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나라도 운하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다른 면이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운하가 필요한지 ? 또는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00m 도크에 50m 폭의 수문 두개 중 하나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 높이가 5m80cm의 수문은 미달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도크내의 깊이는 15m라 한다. 이것으로 조수 간만의 차이를 75cm와 75cm로 5cm 이내로 항상 유지하고 있다.

운하의 수면이 높아질 다양한 종류의 상황에도 언제나 40cm를 유지해야 한다. 그 유지를 위해 펌프는 초당700,000리터를 펌핑하게 된다. 펌프는 6대가 있으며 모두 가동 시에는 주변지역의 단전되는 현상이 있어서 차례대로 가동하게 된다. 펌프장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첫째 40cm 유지이다. 둘째는 운하의 물이 바닷물처럼 짜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곽지역에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수가 담수보다 비중이 크므로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염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동, 식물에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면 아래에 물고기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했으며, 펌핑시 숨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한다. 돌과 벽을 설치하여 이동된 연어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수면 아래로 13.5m 이상과 길이로 300m 이상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 대하여 .....**



자전거 보관소의 모습이다. 이속에서 내 자전거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건강과 비용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여건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차량위주의 도로 건설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며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차도 옆으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한다.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로환경의 설정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단면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수적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이다.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진 교량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별도의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건강문제일 것이다. 운동할 시간 없이 쫓기는 생활에서 자전거로의 출퇴근과 활동은 우리의 모자라는 운동을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시간의 절약일 것이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차량의 소통을 자전거로 전환되면 자전거도 자동차도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비용(에너지)의 절약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 도로의 건설은 현재의 사회적 요구일 것이며, 당연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더러 만들어진 우리의 자전거 도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안전하지 못한 도로의 구성과 연속적이지 못한 도로의 설정, 따라서 주차장화 되어버린 자전거도로, 이런 결과는 계획과 시행이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시행자입장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행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

자전거 신호등 !

참으로 재미있는 풍경으로 다가왔다. 자동차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동차 신호등 옆에 자전거 신호등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자전거를 안탈 이유가 없다.





☞ 풍차마을 잔세스칸스 ( De Zaanse Schans )



풍차마을로 알려진 잔세스칸스는 암스텔담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다. 17-18세기의 목조건물과 크고 작은 풍차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풍차들이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박물관과 상점등이 주변 경관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풍차를 이용한 그림을 도자기화 했다 생활자기화된 풍차의 그림은 방문한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양한 제품들은 방문한 기념품으로 누구나 사하기에 부담없는 가격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이로 우유를 생산하여 치즈를 만들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했다. 질 좋은 제품과 부담없는 가격은 이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게 했다

이들의 삶은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관광을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너나할 것 없이 꼭 들러 가야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 그러나 어디든지 꼭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판단과 추진력일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모두 같이 가고자하는 민주주의적인 참여과정일 것이다. 미래의 바람직한 비전의 제시와 이를 같이 만들고자하는 참여과정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였으리라.

## ☞ 연수를 마치며 .....

이번 북유럽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 연수는 내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연수중 가장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된다. 의원생활 10년 동안에 많은 해외 연수를 했지만 1989년에 연수한 캐나다와 미국 연수 때와 같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낀 연수이다.

많은 부분을 부러움 속에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자

① 공직자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그 전문분야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직순환으로 만능의 공직자를 원하고 있으며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② 지방정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입안과정에 있어서부터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거의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형식적이다. 이는 주민의 민원을 피해가자는 면피용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민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다. 이들은 입안과정의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는 시간도 몇 년씩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로써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 다시 말해 정부의 신뢰도가 100%에 가까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스스로 만든 정서이며 정체성인 것이다

③ 장애복지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장애복지라는 말 자체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복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생활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활동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시설로, 봉사로 채워가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최상의 장애복지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자체가 구분이 없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 이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일 것이다

④ 교육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일 것이고 시작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으로 좋았던 것은 유치원에서 지식의 습득보다는 자연과 사람, 생명 등을 체험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자연과 생명 보다는 지식의 습득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교육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를 밖에서 뛰어 놀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크게 삼는 학부모의 의식 또한 우리의 학부모와는 거리가 멀다.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 우리의 현실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격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자연과 생명을 체험으로 체득한 사람과 그 시간에 지식만을 체득한 사람이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생의 지식 수준이 세계제일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우리의 대학생들의 실력이 세계최고의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는가? 이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이천시 관내에도 25%가 넘는 노인인구를 가진 면도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 과연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노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다 첫째 노쇠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다. 현재는 게이트볼이 전부이다시피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고 늘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쇠약한 부분이나 관절을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시설이 있어야 한다. 항상 자유롭게 물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항상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즐겁고 유쾌한 생활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다. 넷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해야만 하는 어른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른도 있다. 그 일은 사회적 일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 봉사차원에서 찾아야 하는 사회봉사 차원의 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내봉사 차원의 일로 구분되며 일자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은 일자리가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일을 읍면별로 한 장소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 센터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헬싱키시의 도시과를 방문하여 도시계획과 운영 그리고 업무의 추진과정을 알기위한 자리와 스웨덴에서 방문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시립 유치원을 방문한 일, 그리고 노르웨이의 노인 요양 시설을 방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이천시 내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후 도피성 외 유라고 규정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행된 일이며 의원으로서 나는 많은 부분을 실감하고 느끼고 배우고 왔다. 이렇게 배운 것을 어떻게 변환하여 이천의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제안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고민 중에 막히는 부분은 이런 벤치마킹의 안이 과연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이다. 공무원들의 굳어 버린 의식과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으로부터 밀려나기 쉽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다짐하면서 마무리 한다 ..... E N D